

# 구약논단

제 15권 3호(통권 33집) 2009년 9월 30일

이 은애(이화여대) 시 93-100편의 야훼-왕 찬양시편의 구조와 역할 .....	67
본 논문은 시 93-100편의 야훼-왕 시편이 '야훼의 왕권'이라는 주제 아래 의도적으로 구성된 단락으로 시편 제 4권과 시편 전체의 해석의 전환점으로서의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와 내용, 어휘적으로 서로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 야훼-왕 찬양시편의 구조와 위치는 역사의 실패와 절망으로부터 야훼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희망의 길을 제시한다.	
Lee, Eun-Ae The Structure and the role of Yahweh-King Psalms(Pss 93-100) ....	67

---

## 시 93-100편의 야훼-왕 찬양시의 구조와 역할

---

이 은애 | 이화여대

### 1. 들어가는 말

등극시 혹은 야훼-왕 찬양시로 분류되는 유형의 특징을 가진 시들이 시편의 5부적 구성 중 제 4권(시 90-106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것은 시편의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 즉 제 1권과 제 2권이 다윗 왕조와 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 3권이 다윗 계약에 대한 야훼의 분명한 거절을 드러내는 반면, 제 4권과 제 5권은 야훼가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들 위에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편의 강조점이 다윗 왕조로부터 야훼의 신정으로 옮겨지는 데 있어, 제 4권은 시편 '편집의 중심'<sup>1)</sup>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제 4권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야훼의 왕 되심'을 자세히 다루는 시 93-100편을 중심으로 그 앞엔 서언 역할을 하는 시 90-92편이, 그 뒤에는 결론 역할을 하는 시 101-106편이 놓여서 동일한 주제인 '야훼의 왕 되심'에 대해 폭넓게 서술하고 있다.<sup>2)</sup> 특히 제 4

---

1) G. Wilson,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Chico: Scholars Press, 1985), 215쪽.

2) M. Leuenberger, *Konzeptionen des Königtums Gottes im Psalter* (Zürich: Theologischer

권의 중심부에 놓여있는 시 93-100편은 시편 연구에서 본래 하나의 그룹으로 인정되어 왔는데, 그것은 그 주제가 공통적이고 문체와 용어에 있어서도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 93-100편에는 다양한 표현 속에서도 일관적으로 '왕'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야훼-말락'(YHWH malak)이나(시 93, 96, 97, 99편) 그와 유사한 형태들을 사용하여 왕으로서의 야훼를 묘사하고, 찬양의 호소와 그 근거가 뒤따르는 찬양시의 전형적 구조 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 시편들을 하나로 묶는 특징이 된다. 또한 마소라 텍스트에서 시 98편과 시 100편 앞의 짧은 표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표제가 없다는 것 또한 이 시들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 93-100편의 시들은 시 93편에서 직접적으로 선포된 야훼의 우주적 왕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야훼-왕 찬양시로 분류된 시들을 중심으로 시 93-100편의 구조적 상관성과 그 편집 의도를 추적해 보도록 할 것이다.

## 2. 야훼의 등극에 대한 논의

시 93, 96-99편은 궁켈(H. Gunkel) 이래로<sup>3)</sup> 시 47편과 함께 그 유형적 특징에 따라 야훼의 등극시<sup>4)</sup>로 분류되어 왔다. 야훼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시며(시 47: 2, 7; 97: 9; 98: 6; 99: 4), 환호와 나팔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시 47: 1, 5; 98: 4) 보좌에 오르시며(시 47: 5),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 모든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신다(시 47: 8; 96: 10; 99: 1). 그러므로 야훼의 등극시는 야훼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야훼의 왕권은 이스라엘의 구원사에서 나타나는 역사적인 것(C. Westermann, M. Buttenwieser, J. J. M. Roberts)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과 모든 만민의 새로운 세계의 임금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종말론적 사

Verlag, 2004), 132쪽.

3) H. Gunkel, *Einleitung in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 100-116쪽.

4) 야훼가 왕으로 등극하는 등극식(즉위식)과의 관련성 때문에 '등극시'라는 명칭 대신에 좀 더 중도적인 '야훼 왕권을 축하하는 시편들'(Anderson, Kraus) 혹은 '야훼-왕권 시편들'(Gerstenberger, Tate)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고, 이 부류에 속하는 시편들은 왕이신 야훼의 통치를 찬양하고 축하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M. E. Tate, 「시편 51-100(WBC 20)」(손석태 옮김), (서울: 솔로몬, 2000), 823쪽.

건(H. Gunkel, W. O. E. Oesterley, A. B. Rhodes, J. L. Mays)으로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이 야훼 등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구체적인 예배 의식 중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체험하는 곳에서 불렀다고 할 수 있다.<sup>5)</sup>

야훼의 등극을 찬양하는 시가 어떤 예배에서 불렀는가에 대한 논의는 모빙켈(S. Mowinckel)이 매해 가을에 열리는 신년축제(The New Year Feast of Jahwe)에서 야훼가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의 보좌인 언약궤에 앉는 등극제가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야훼의 현현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될 때, 백성들은 ‘야훼가 왕이 되었다’(YHWH malak)고 외침으로(시 47: 2, 8; 93: 1; 96: 10; 97: 1) 야훼가 왕임을 선포하고, 야훼 앞에 경배한다는 것이다. 모빙켈은 그의 신년축제 학설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신년축제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성서적 근거(왕상 6: 37-38; 12: 26-33)와 신년축제에서 불린 것으로 추정되는 제왕 시, 야훼 등극시, 시온 시, 순례 시 등의 시편들을 제시한다. 또한 고대 바빌론의 신년축제인 아키투(Akitu) 의식에서 마르둑(Marduk)이 왕위에 오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신년축제 때 야훼가 왕위에 오르는 의식이 있었다고 추정한 것이다.<sup>6)</sup>

그러나 와이저(A. Weiser)는 고대 바빌론에서와 같은 신년축제가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예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갱신하는 제의가 매년 가을 초막절에 있었고, 그 언약제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이 찬양되었다는 것이다. 그 언약제는 세겜에서 가장 먼저 행해졌으며(수 24장), 그 중심점은 언약궤라고 보았다.<sup>7)</sup>

또한 크라우스(H.-J. Kraus)도 모빙켈에 반대하여 이스라엘에서는 바빌론에서처럼 신년축제가 사람이 들고 다니는 신상도 없었고, ‘야훼-말락’은 모빙켈이 번역한 것처럼 ‘야훼가 왕이 되셨다’가 아니라 ‘야훼는 왕이시다’라는 의미로, 야훼는 지금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즉 야훼가 왕으로 등극하는 실제적인 의식들이 없

5) J. H. Eaton, E. A. Leslie, S. Mowinckel, A. Weiser 등.

6) 함 성국, “대관 시”, 240-243쪽, 문 희석, 「오늘의 시편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227-244쪽.

7) A. Weiser, *The Psalms*, Old Testament Library, trans. H. Hartwel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2), 23-52쪽.

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크라우스는 매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던 축제가 있었으며, 그 축제는 '신년축제'나 '언약제'가 아니라, 야훼의 예루살렘 선택과 다윗의 선택을 축하하는 시온 제왕 축제(Annual Royal Festival on Mount Zion: Royal Zion Festival)라고 규정한다. 이 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계를 따라 성소에 오르면서, 시온을 찬양하고, 야훼의 왕 되심을 노래함으로써 시내 산-모세 언약과 시온 산-다윗 언약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다.<sup>8)</sup> 이러한 견해는 '야훼가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과 시온 신학이 밀접한 상관 관계에 있으며, 다윗 신학과 시온 전승이 이스라엘 예배에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관 관계는 대표적인 야훼-왕 시인 시 47편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시 47편은 정교하게 구성된 문학 작품으로 찬양하라는 요청을 반복하고 있는 두 '연'으로 이루어진 찬양시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 구조는 '찬양하라'는 두 번의 외침(시 47: 1, 6)과 ki(כִּי)로 시작하는 찬양의 이유(시 47: 2-5, 7-9)로 나누어지는 두 부분(시 47: 1-5, 6-9)으로 구분된다.<sup>9)</sup> 만 백성은 손뼉을 치고, 기쁨의 합성을 외치고, 시와 노래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시 47: 1, 6), 그것은 야훼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이다(시 47: 2, 7). 하나님이 '올라가신다'(אֲלֹהֵינוּ שִׁיר 47: 5)는 2절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 '지극히 높으신 분'(יְיָ)의 설명으로 보이는데,<sup>10)</sup> 이 표현은 야훼의 임재와 현존을 상징하는 언약계가 예루살렘 성전의 언덕을 올라 지성소에 안치되는 야훼-왕의 행차와 등극 축제의 행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는 보좌에 앉아서 못 백성을 다스리신다(시 47: 8). 그 통치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열방과 만민에게 미치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시 47: 9). 시 47편은 현재 왕으로 등극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야훼의 참으로 왕 되심은 과거의 구속이나 미래의 완성을 모두 내포하며, 예배자들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8) H. -J. Kraus, *Die Königsherrschaft Gottes im Alten Testament* (Tuebingen: J. C. B. Mohr, 1951), 50쪽 이하; 권 오현, 「시편 탐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47-48쪽에서 재인용.  
 9) P. C. Craigie, 「시편 1-50」, 손 석태 역, WBC 19 (서울: 솔로몬, 2000), 467-468쪽.  
 10) 차 준희,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시 47편의 신학적 읽기, 161쪽, 김 영일 외 17인, 「시편-우리 영혼의 해부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6), 155-172쪽.

과 찬송을 돌리게 된다.<sup>11)</sup>

현재 시편의 정경적 구조 안에서 시 47편의 현재 위치는 그 중요성과 의미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야훼의 왕권과 통치를 찬송하고 축하하는 시 47편은 지상에서의 야훼 왕권의 실현인 시온에서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시 46편과 시 48편 사이에 놓여있다. 김 창대는 시 46-48편이 시온이라는 주제와 어휘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전체 내용은 동심원적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 46-48편을 한 덩어리로 읽어야 된다고 주장한다.<sup>12)</sup>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시온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다윗 왕을 통하여 다스리지만, 온 우주와 모든 나라와 만 백성을 다스리시는 실제 임금은 오직 야훼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로 선언된 하나님의 신화적 왕권은 예루살렘이라는 구체적 장소에서 다윗이라는 구체적 인물을 통해서 실현되며, 그것은 성전 예배에서 반복적으로 선언되고 불러짐에 따라 현재의 예배 안에서 과거 하나님의 구원사를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시 42-43편의 개인 탄식시와 시 44편의 공동체 탄식시 뒤에 왕의 결혼식에 관한 시(시 45편)가 나오고, 그 뒤를 시 46-48편이 따르는 구조는 시편 전체를 읽는 독자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고 경건 생활을 위한 문학 작품으로 의도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누구든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의 공통적인 혼돈, 불의, 비극, 고난의 탄식은 이제 야훼가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와 온 백성들을 다스리심으로써, 그리고 그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시온에서 다윗 왕에 의해 실현됨으로써 참된 평화와 기쁨의 노래로 바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sup>13)</sup> 이와 같이 최종 형태의 시편 전체 안에서 야훼-왕 시는 편집자의 신학적 의도에 따라 정교하게 배열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또 다른 야훼-왕 시 그룹인 시 93-100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1) 권 오현, 「시편 탐구」, 487쪽.

12) 김 창대, “주위 문맥에서 본 시 46편의 시온 신학”, 구약논단 제 15권 2호(2009), 73-74쪽.

13) 권 오현, 「시편 탐구」, 523쪽.

### 3. 시 93-100편 안의 야훼-왕 시들

시 93-100편의 시 모음들은 하나의 통일적인 그림을 그리고, 서로 상 황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 93편에서 시작되는 야훼-왕 선언과 찬양은 시 99편까지 계획적 구조 안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시 100편은 그 앞에 놓여있는 야훼-왕 시들의 결말로 주어진다. 시 93편 과 97편, 99편은 '야훼가 다스리신다'는 선포와 함께 시작하는 주제 시 들로서 왕권의 다양한 측면들을 나타낸다.<sup>14)</sup> 이 글에서는 이 주제 시들 을 중심으로 하여 시 93-100편 단락의 심장부를 이루고 있는 시 96-99편의 구조적 상관 관계를 밝히고, 더 나아가 시편 제 4권 안에서 시 93-100편 단락의 구조와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 1) 시 93편

시 93편은 물로 된 혼돈의 세력을 이기고 질서를 부여하신 창조주 하 나님의 왕권을 노래한다. 그의 보좌와 왕권은 따라서 '예로부터'(יְמִינֶיךָ), '영원부터'(לְעוֹלָם) 세상 모든 세력들 위에 계셔서 다스리시며, 야훼는 태초부터 주어진 그의 왕권을 행사하면서 세계를 위협하는 혼돈을 제압 하고 세상에 견고함과 생명을 주는 세상의 왕인 것이다. 이와 같이 창조 와 관련된 야훼 왕권에 대한 찬양시는 70인역에서만 나타나는 시 93편 의 표제 '안식일 전날, 그 땅이 사람이 살게 되었을 때에, 다윗을 위한 찬양 노래'에서도 드러난다. '땅에 사람이 살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창 조 사역, 그리고 인간의 창조일인 '안식일 전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 로 귀환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5)</sup>

세계의 왕인 야훼에 대한 찬양시(시 93: 1-4)는 시 93편 1-2절과 3-4절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주제 어구인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로 시작하는 시 93편 1절은 2절에서 태초부터 왕이 되셔서 왕권을 행 사했다고 해석된다. 야훼의 왕권은 야훼가 호화로운 의복이나 군주의 빛 나는 겹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전투력으 로 표현된 옷을 입음으로 특징지어진다.<sup>16)</sup> 야훼-왕 시의 특징적인 형태

14) E. Zenger, *Psalmen Auslegungen 2: Ich will die Morgenröte wecken* (Freiburg / Wien / Basel: Herder, 2006), 74쪽.

15) M. E. Tate, 「시편 51-100」, 771쪽.

16) E. Zenger, "Theophanien des Königsgottes JHWH: Transformation von Psalm 29 in den

인 'YHWH malak'에 대한 해석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מַלְאָךְ(말락/다스리다)이라는 동사는 사전적 의미로는 그 시점부터 어떤 행위를 시작하는 의미(ingressive)의 동사로 보아 '왕이 되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의미로(durative) 보아 '왕이다'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야훼-말락'이 사용된 문맥 안에서 적절한 우선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어순에 있어서 동사 '말락'이 주어 앞에 나왔을 때는 야훼의 왕권이 시간적으로 시작되는 동작의 과정을 강조하여 '야훼가 왕이 되었다'로 해석할 수 있지만(비교 삼하 15: 10; 왕하 9: 13), 또한 그 이후 그 왕권이 현재까지 역동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까지 포함한다. 반면, 야훼-왕 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주어 '야훼'가 동사 앞에 나왔을 때는 왕이 되는 과정, 결과, 상태가 모두 주어진 '야훼'에게 돌려짐으로써 동사가 아닌 주어로 강조점이 옮겨지며, 이 또한 역동적인 왕권의 시작과 함께 왕권이 지속되는 현재적 상태를 더욱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sup>17)</sup>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야훼가 왕이다', '야훼가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왕권의 신화적 은유로서 보좌(כִּסֵּא 시 93: 2)는 우주의 중심으로서 견고함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왕궁인 예루살렘 성전('주의 집' 시 93: 5)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높이 계신다('높이 계신 야훼' 시 93: 4). 그는 처음부터 왕이셨고 혼돈을 정복하였으며(시 93: 3), 그의 능력은 항상 그보다 크다(시 93: 4). '큰 물'(시 93: 3)이나 '바다의 큰 파도'(시 93: 4b)는 창조를 위협하던 원초적인 혼돈의 세력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정복됨으로써<sup>18)</sup> 이 우주가 발생하게 되고 처음부터 온 세상 위의 야훼의 왕권이 수립되었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태초부터 시작된 야훼의 왕권은 그의 통치가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확신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시 93편 5절에서 '에도트'(עֲדוּת)는 맛소라 본문에 따라 '증언들', '규례들', '계명들'로 해석하여,<sup>19)</sup> 야훼의 뜻과 증언은 야훼의 보좌(시 93: 2)

Teilkompositionen Ps 28-30 und Ps 93-100", 423쪽, in: P. W. Flint & P. D. Miller, Jr. (edt.) *The Book of Psalms*, vol.2 (Leiden: E. J. Brill, 2005).

17) M. Leuenberger, *Konzeptionen des Königtums Gottes im Psalter*, 139-141쪽.

18) 티아맛을 정복한 마르둑의 승리에 관한 바빌론 신화의 전승과 유사한 형태의 '야훼의 승리' 관념은 시편 곳곳에 남아있다(시 89: 9 이하; 104: 7 등). A. Weiser, 「시편(III)」, 김 이곤 역, 국제성서주석 16-2,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259쪽.



와 이 세계(시 93: 1)처럼 확실하고 확고하다고 선언한다. 야훼의 ‘집’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야훼가 거기 거하시고 현존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다. 야훼의 집, 즉 성전에 대한 언급은 우주의 혼돈 세력을 제압한 야훼의 승리와 그의 왕권을 확고히 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sup>20)</sup>

시 93편의 내용은 포로 이전의 이른 시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하게 한다. 다후드(M. Dahood)는 시 93편과 가장 가까운 짝이 기원전 10세기로 소급될 수 있는 시 29편으로서, 야훼의 승리와 왕권, 하늘 궁전에서 야훼 찬양 등의 주제가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았으며,<sup>21)</sup> 하워드(D. M. Howard)도 문체, 용어, 내용적 특징들을 근거로 10세기 이전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한다.<sup>22)</sup> 같은 맥락에서 쟁어(E. Zenger)는 시 93편의 초기 형태를 시 29편이나 시 46-48편의 초기 형태와 유사하며, 포로 이전의 성전 신학의 요약으로 본다.<sup>23)</sup> 쟁어에 의하면, 포로 후기 편집자가 시 93편의 원래 형태에 후에 5절을 첨가함으로써 세계의 왕인 야훼의 능력을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혼돈과 싸우는 야훼의 능력은 이제 성전에서 행해지는 예식에 의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토라에 의해 중재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완성된 시 93편은 시편 제 4권 안에서 현재 위치에 의도적으로 선택, 배치되었으며, 포로 시대 혹은 포로 이후 시대의 정황 속에서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sup>24)</sup> 제 4권 안에서 시 93편은 이제 시 90-92편에서 단지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야훼 왕권에 대한 기본적 개념들을 폭넓게 이어가고 있으며, 시 93편에서 선언된 야훼 왕권의 다양한 측면들은 뒤의 시 94-100편의 시들에서 더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다. 시 90-92

19) Dahood는 마소라 텍스트의 에도트가 우가릿어인 ‘d(보좌)에서 파생된 변형어 ‘dt로 봐야한다는 Schenkel의 견해를 따라서 ‘당신의 즉위’(your enthronement)로 번역한다. M. Dahood, *Psalms II: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with an Appendix*, Anchor Bible 17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0), 342쪽.

20) 왕의 승리와 왕권의 확립을 위해 왕궁을 세우는 가나안의 기록과 일치한다. M. Dahood, *Psalms II*, 343쪽.

21) 윗글, 339쪽.

22) D. M. Howard, *The Structure of Psalms 93-100* (Winona Lake: Eisenbrauns, 1997), 48-55쪽.

23) E. Zenger, “Theophanien des Königsgottes JHWH”, 423쪽.

24) M. E. Tate, 「시편 51-100」, 783쪽.

편은 제 3권과 야훼-왕 시 단락(시 93-100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양식사적으로 의도된 순서, 즉 탄원과 기원(시 90편) - 구원 약속(시 91편) - 찬양시 요소를 포함하는 지혜 감사시(시 92편)로 되어 있어서 개인적 영역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5)</sup> 이것은 뒤에 시 93편과 이어지며 계속되는 야훼-왕 시 단락에서 땅과 하늘을 포함하는 자연 세계,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을 포함하는 우주적 영역 위의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 2) 시 97편

‘야훼-말락’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 시인 시 97편은 구름과 흑암 속에서 불과 번개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자세히 묘사(시 97: 1-5)하는데, 이것은 바로 앞의 시 96편 13절에서 야훼가 ‘오셨다’(אָבַח)는 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시 97편은 야훼의 신적인 왕권을 높이는 시 97편 1-9절과<sup>26)</sup> 야훼께 헌신한 자들을 격려하는 시 97편 10-12절로 나눌 수 있다.<sup>27)</sup> 세상과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야훼는 정의와 공평을 기초로 한 보좌로부터 통치하시는데(시 97: 1-3), 뇌우와 지진 속에서 현현하시고(시 97: 4-5), 그 현현을 하늘과 만 백성이 경험하며(시 97: 6), 이방 신들과 우상의 본질을 폭로하고(시 97: 7), 시온과 유다의 딸들도 기뻐하게 된다(시 97: 8-9). 야훼가 현현하셔서 직접 다스리시는 역사의 개입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위의 모든 백성들과 신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정의와 공평’(시 97: 2)으로 통치하고 심판하실 왕으로서의 야훼의 현현은 하나님의 오심과 그의 통치의 시작을 알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구원을 실현하는 종말론적 구원 신앙을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8)</sup>

시 97편 10-12절은 야훼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시 36편 10-11절과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sup>29)</sup> 의인의

25) M. Leuenberger, *Konzeptionen des Königtums Gottes im Psalter*, 132-138쪽.

26) Dahood는 시 97편 1-9절 부분을 하나님의 현현 부분(시 97: 1-6)과 우상 숭배자들의 수치를 기뻐하는 이스라엘 부분(시 97: 7-9)으로 세분한다. M. Dahood, *Psalms II*, 361쪽.

27) M. E. Tate, 「시편 51-100」, 843-849쪽.

28) A. Weiser, 「시편 II」, 276-277쪽.

29) M. Dahood, *Psalms II*, 361쪽.

구원이라는 주제와 언어적 측면에서 시 96-98편보다는 시 94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sup>30)</sup> 이 설교 형태의 교훈은 특히 포로 시대와 포로 이후 시대의 공동체들의 정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으로 보인다.<sup>31)</sup>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하는 자로서(잠 8: 13) 야훼의 빛이 그 의인들에게 뿌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야훼의 왕 되심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구원 약속을 듣고 있는 공동체는 아직 악과 어둠이 가득한 삶에서 악과 투쟁하며 야훼의 빛을 희망하는 공동체이다.<sup>32)</sup> 즉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모든 신들의 왕이신 야훼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포로 혹은 포로 후 공동체에게 구원의 희망을 고양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 이 설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테이트(M. E. Tate)는 야훼의 백성에 대한 격려와 능력을 부여하는 시 97편 10-12절이 이 전체 시편의 일차적 목표이며, 시 97편 전체의 존재 이유라고 본다.<sup>33)</sup>

시 97편은 정의와 공평(צדק ופֶּדְיוֹן)으로 다스리시는(시 97: 2) 그의 왕권을 모든 백성들(כָּל־הָעַמִּים, 시 97: 6) 앞에서 선포하는데, 그것은 시 96편 13절에서 '정의(צדק)로 세상을 심판하시며(פֶּשַׁע), 그의 진실함으로 모든 백성들을(עַמִּים)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이 오셨다는 선언의 확증이다. 이 '정의(צדק)'라는 개념은 시 97편을 묶는 주요 주제인데, 시 97편 2절과 6절에 나오는 '체데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리킨다면, 시 97편 11-12절의 '체데크'는 인간의 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 인간도 의롭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sup>34)</sup>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 이 땅 위의 것과 하늘의 영역에서도 그 위에 계셔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시 96편과 98편과의 연계성을 잘 보여준다(시 96: 10 이하; 98: 9 이하).

30) Leuenberger는 시 97: 10-12가 시 96-98편의 밀접한 문맥과는 다른 주제를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오히려 비교적 늦게 시 93-100편 단락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시 94편과 같은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시 97편에서 야훼-왕 주제는 이미 9절에서 끝나고 있기 때문이다. M. Leuenberger, *Konzeptionen des Königtums Gottes im Psalter*, 157쪽.

31) M. E. Tate, 「시편 51-100」, 846쪽.

32) A. Weiser, 「시편(II)」, 279쪽.

33) M. E. Tate, 「시편 51-100」, 846쪽.

34) 함 성국, 「시편 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03쪽.

시 97편 1-9절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든’(כָּל)이라는 단어는 시 97편의 우주적 관점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어는 땅(시 97: 5, 9), 백성(시 97: 6), 신들(시 97: 7, 9)과 관련하여 사용되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권능에 경탄한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sup>35)</sup> ‘땅’(אָרֶץ)이라는 단어 또한 시 97편 1절과 4-5절에서 시의 첫 단락을 구조적으로 감싸고, 또한 시 97편 1절과 9절에 나와서 시 97편 전체를 포괄적으로 감싸는 중요한 단어인데,<sup>36)</sup> 이것은 시 97편을 둘러싸고 있는 시 96편과 시 98편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이기도 하다.

### 3) 시 99편

시 99편은 시 96-99편의 핵심 단락 가운데서 가장 변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 96-98편이 제 2 이사야에서처럼 야훼 하나님의 우주적-보편적 통치를 선포하는 반면,<sup>37)</sup> 시 99편에서는 이스라엘의 번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 99편 역시 ‘야훼-말락’으로 시작하고 모든 민족 위에 높이 계신 왕께 찬송하고 경배하기를 요구(시 99: 2)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 96-98편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거의 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 시 99편 5절과 9절은 시 99편을 1-5절, 6-9절의 두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이 된다. 앞부분에서는 보좌에 앉으시는 야훼 왕의 현현을 묘사하며, 그 앞에 모든 백성들과 세상들이 경배하고 찬양할 것을 요구한다. ‘그의 발등 상’(רִגְלָיו מִרְגֵּם 시 99: 5)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신적 왕이 발판으로 사용하는 상자, 즉 궤를 의미하는 것으로, 언약궤 자체 혹은 그것이 있던 성전 혹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38)</sup> 그것은 시온에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시 99: 2)이 ‘공평과 정의’(מִשְׁפָּט וּדְמָיּוּת 시 99: 4)로 다스리신다는 야훼의 왕권에 대한 묘사이다. 야훼 통치의 핵심적 주제로서의 ‘공평과 정의’는 시 99편이 시 97편의 주제어(시 97: 2)를 반복하고 있으며,

35) D. M. Howard, *The Structure of Psalms 93-100*, 75쪽.

36) 함 성국, 「시편 해석」, 103쪽.

37) H.-J. Kraus, M. Bittenwieser 등 H. -J. Kraus, *Theology of Psalms*, trnas. K. Crim (Minneapolis: Ausburger Publishing House, 1986), 84-106쪽.

38) M. E. Tate, 「시편 51-100」, 860-862쪽.

시 98편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sup>39)</sup> 시 99편 1절의 ‘백성들’(בָּרִמָּה)과 ‘땅’(אֶרֶ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왕권의 범위를 보여주는 말로서, 특히 시 98편 마지막 절(시 98: 9)을 반복하며 시 98편과의 연계성을 확인시켜 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중재자인 세 사람, 즉 모세, 아론, 사무엘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계명과 율례를 지켰다고 회상한다(시 99: 7). 여기서 ‘구름 기둥’은 모세와 아론과 관련하여 광야 시대의 하나님의 보호를 연상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전의 제단에서 나오는 연기 기둥을 암시할 수 있다.<sup>40)</sup> 이 중재자들을 통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수립과 지속은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사로 이해하게 한다.<sup>41)</sup> 그러나 시 99편은 모세-광야 모티브를 사용함으로써 포로 시대와 포로 이후 시대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sup>42)</sup> 즉 다윗 왕조도, 예루살렘의 성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야훼-왕은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 위에 있어서 여전히 온 세상과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야훼의 왕권이 시온의 성전을 중심으로 실현될 것임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 4. 주제 시를 중심으로 한 시 93-100편의 구성

시 93-100편 단락 안에서 다른 시들 또한 야훼가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야훼-왕 시들을 중심으로 서로 주제와 내용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 1) 시 96편과 시 98편

시 97편과 마찬가지로 다른 민족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야훼 왕 앞에서 경배하라고 요구하는 명령적인 시인 시 96편, 98편은 시 93-100편 안에서 시 97편과 함께 하나의 소그룹을 형성한다. 시 97편을 가운데 두고 두 시는 똑같이 ‘새 노래로 야훼를 찬양하라’(시 96: 1; 98: 1)는 요구로 시작하고,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시 96: 13; 98: 9) 야훼 앞에서 환

39) D. M. Howard, *The Structure of Psalms 93-100*, 179쪽.

40) M. E. Tate, 「시편 51-100」, 862쪽.

41) A. Weiser, 「시편(II)」, 291쪽.

42) M. E. Tate, 「시편 51-100」, 863쪽.

호성을 올려 찬양하도록 모든 피조물에게 요구하는(시 96: 11-12; 98: 7-8) 결말에서 절정을 이룬다. 즉 시 96편과 시 98편은 내용과 구조면에서 유사하다는 것이다.<sup>43)</sup> 시 98편은 시 96편과 마찬가지로 찬양 요구가 지배적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찬양의 이유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98: 1-3)이다. 이러한 찬양이 ‘온 땅’(시 98: 4)은 물론 ‘바다’와 ‘세계’(시 98: 7), ‘강’과 ‘산’(시 98: 8) 등 자연 세계에 요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온 피조 세계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 98편 초반에 나오는 ‘거룩한’(שָׁקֵט), ‘기억하다’(זָכַר), ‘사랑하다’(אָהַב) 등의 단어는 시 97편의 마지막 부분(시 97: 10-12)과의 연결점을 제시하며,<sup>44)</sup> 시 98편의 주제들은 ‘야훼’, ‘다스리다’(רָאָה), ‘땅’(אֶרֶץ), ‘백성’(עַמִּי), ‘심판하다’(שָׁפַט) 등의 동일한 단어들을 통해서 시 99편에서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시 96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야훼 왕권의 보편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시 96편은 제 2이사야의 보편주의 사상과 언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sup>45)</sup> 온 세계의 왕으로서의 야훼를 찬양하는 시 98편과 함께 바빌론 포로 시대 이후의 작품으로 이해된다.<sup>46)</sup> 시 96편 5절에서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한 야훼 하나님(시 96: 4)과는 반대로 만국의 신들은 어떤 창조적 능력도 없는 우상(עֲלֵלִים)들로 선언됨으로써, 시 97편 7절(“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모든 신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라”)과 내용적, 신학적인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sup>47)</sup> 더 나아가서 시

43) 시 96편은 문학적 맥락에서 뒤의 시 97편과는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반면, 앞의 시 95편과는 상이한 언어적, 전승사적 특징들을 보여준다. Leuenberger는 시 96-98편의 밀접한 연관성에 비해 시 95편과 99편, 그리고 시 99편과 같은 맥락에 있는 시 93: 5는 후대의 강조된 보충 기록으로 이해한다. M. Leuenberger, *Konzeptionen des Königtums Gottes im Psalter*, 154쪽.

44) D. M. Howard, *The Structure of Psalms 93-100*, 178쪽.

45) M. Dahood, *Psalms II*, 357쪽.

46) 함 성국, 「시편 해석」, 99쪽; E. Zenger, "Theophanien des Königsgottes JHWH", 425-426쪽. 시 96편의 연대는 LXX에서의 표제 ‘포로 이후에 그 집이 건축되었을 때, 다윗의 노래’에서도 포로 이후 시대로 추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 E. Tate, 「시편 51-100」, 831쪽.

47) 쟁어는 시 96: 5이 시 97편을 시 93-100편 단락 안에 포함시킨 편집자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 Zenger, "Theophanien des Königsgottes JHWH", 430쪽.

96편에서 야훼의 위대함을 확인하는 부분(시 96: 4)은 시 95편(3절)과의 중요한 연결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sup>48)</sup> 이러한 연결점은 시 93-100편 내의 시들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2) 시 95편과 시 99편

이 중심 그룹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시, 시 95편과 시 99편 또한 서로 관련이 있다. 이 두 시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대한 왕(시 95: 3; 99: 2)이신 야훼를 찬양하도록 명령한다. 야훼는 ‘우리 하나님’(시 95: 7; 99: 5, 8, 9)이시며, 역사 가운데 자신을 계시(시 95: 8-11; 99: 4, 6-8)하신 분이다. 특히 시 99편의 마지막 연(시 99: 6-9)은 시 95편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구절(시 95: 10-11)에 대한 변증법적 대구 절로 이해할 수 있다.<sup>49)</sup>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의 하나님 야훼는 인과응보의 정당한 분노를 넘어서는 ‘용서하는 하나님’(시 99: 8)이라는 것이다.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 95편은 ‘오늘’, ‘들어 보아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 ‘시험하고 시험하다’(시 95: 7b-11) 등의 전형적인 용어들로 인해 신명기-신명기 사가적 관점들이 드러나지만, ‘안식’(שָׁלוֹם 시 95: 11)이라는 제사장적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제사장적으로 표현된 시 99편에 대한 편집적인 대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50)</sup>

또한 시 95편은 야훼의 왕권이라는 주제로 시 93편과도 연결되어 있으며(시 93: 1/시 95: 3), 이것은 시 95편이 시 94편보다는 시 93편과 더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 94편이 탄원/기원인데 비해, 시 93편과 시 95편은 찬양시의 성격이 강하며, 시 94편이 이스라엘 내부 영역에 집중하는 반면, 시 95편(특히 3-5절)과 시 93편은 창조 사건을 포함하는 우주적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1)</sup> 또 다른 한편, 시 95편에서 창조주와 목자로서 야훼의 지위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 95편과 시 100편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

48) D. M. Howard, *The Structure of Psalms 93-100*, 176쪽.

49) E. Zenger, *Psalemen Auslegungen 2*, 75쪽.

50) M. Leuenberger, *Konzeptionen des Königtums Gottes im Psalter*, 150쪽.

51) 윗글, 149쪽.

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시 95: 4-7/시 100: 3).<sup>52)</sup>

### 3) 시 94편

시 93-100편의 단락 가운데서 시 94편은 그 문체와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독립적인 것으로 구분된다.<sup>53)</sup> 특히 시 94편에서는 ‘왕’(מֶלֶךְ)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고, 찬양시의 형태를 띠지 않으며, 시 93-100편 중 다른 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1인칭 문체(특히, 시 94: 16 이하)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을 심판하고 징벌하시기를(시 94: 2-7) 원하는 기도는 온 땅과 모든 민족들을 야훼 찬양으로 초대하는 다른 시편들과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시의 초입부터 두 번에 걸쳐서 야훼를 ‘복수하시는 하나님’(יְהוָה נִמְנָן)으로 부르고 있는 것도 독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93-100편 단락 안에서 분명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 즉 그 단락을 이끌어 가는 주제 시인 시 93편 바로 뒤에 놓여서 시 93편에서 선언된 의로운 ‘왕이신 야훼’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는’(시 94: 6) 악한 자들을 대비시키고 ‘의인의 생명을 노리며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씌워 처형하려는’(시 94: 21) 악한 재판장(시 94: 20)을 벌하는 분으로 묘사한다. 그러므로 시 94편에서는 시 93편에 이어서 ‘왕’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과 구약성서에서도 잘 알려진 과부와 고아를 위한 공의로운 법 집행자로서의 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sup>54)</sup>

또한 시 94편 마지막에 ‘야훼는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시 94: 22)라는 표현은 시 95편 처음에 야훼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이라고 부름으로써 연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시 94: 1)의 속성은 시 99편 8절에서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으로 이어진다.

52) D. M. Howard, *The Structure of Psalms 93-100*, 175쪽.

53) 이러한 주제 상의 특징은 시 94편을 현재의 시 93-100편의 단락에 나중이야 비로소 첨가된 것으로 보게 하는 근거가 된다. M. Leuenberger, *Konzeptionen des Königtums Gottes im Psalter*, 145쪽.

54) E. Zenger, *Psalmen Auslegungen 2*, 76쪽.



#### 4) 시 100편

7개의 명령형 동사들이 사용된 명령형의 찬양시인 시 100편은 성소를 향해서 성문으로 들어가고 성전 뜰로 들어가는 예배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성전에 들어간 예배자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sup>55)</sup> 찬양에의 부름(시 100: 1, 2, 4)과 찬양의 이유(시 100: 3, 5)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찬양시의 형태로 된 시 100편은 마지막 5절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אהבה)과 성실함(אֱמֻנָה)의 영원성을 강조함으로 그의 선하심을 찬양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다.<sup>56)</sup> 시 100편은 특별히 형식상으로, 3박자의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앞에 나온 시들을 지속적으로 인용한다는 일관된 내용으로 볼 때, 완성된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 100편은 우주적 관점에 있어서 시 99편 4절 이하와 시 96-98편과 연결되고 있으며, 또한 시간적으로 보면 시 93편 2절에 대한 미래 대칭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계약 공식과 목자 은유(시 95: 7/시 100: 3)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창조에 대한 언급(시 95: 4-5/시 100: 3a) 등에서도 시 95편과 긴밀한 상관 관계를 보여준다.<sup>57)</sup> 즉 시 100편은 시 93편, 95편, 96편, 97편, 98편, 99편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용하고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sup>58)</sup> 이것은 시 100편이 시 93-100편의 의도적인 결론 부분으로 기획되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 5. 나오는 말

이와 같이 시 93-99편의 일곱 개의 시들은 야훼의 왕권에 대한 내용으로 서로 밀접히 관련된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왕으로서의 야훼'라는 주제는 물론이고, 모세와 다윗 계약에 대한 반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세를 통해 받은 토라, 하나님 구원 계획의 중심에 놓여 있는 다윗 왕조와 시온, 그리고 창조와 이스라엘의 선택 등의 공통 주제가 시 93-100편 단락 안의 시들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 시 93편에서 시

55) M. E. Tate, 「시편 51-100」, 871쪽.

56) W. H. Bellinger, *Psalms-Reading and Studying the Book of Praises*, (Peabody: Hendrikson Publishers, 1990), 96-98쪽.

57) M. Leuenberger, *Konzeptionen des Königtums Gottes im Psalter*, 170쪽.

58) 그러나 좀 더 후대의, 그리고 주제에 있어 새로운 강조점을 가진 시 94편과, 앞부분에 비해 후대 첨가로 보이는 시 97: 10-12와 시 100편의 관련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앞의 책, 171쪽.

작성된 그의 왕권은 시 100편에서 정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시 100편은 시 93-100편의 구조 안에서 7+1 형식에 따라 클라이맥스로 의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59)</sup> 결말 부분을 이루는 시 100편은 서론 부분인 시 93편과 형식적인 면에서 매우 일치하고 있는데, 두 시의 각 절이 모두 3박자(Trikola)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시 100편은 그 주제와 내용에 있어서 앞의 시들, 특히 시 95편(시 95: 2, 6-7), 시 96편(시 96: 2, 8), 시 98편(시 98: 3-4)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의 다른 시편들보다 뒤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덟 편의 시들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시 93편] YHWH malak, 서론
- 시 94편] 악한 자를 벌하시는 의로운 왕 야훼
- 시 95편] '우리'(이스라엘)의 하나님
- 시 96편] 새 노래로 야훼께 찬양하라!
- 모든 민족, 나라 위의 하나님의 통치
- 시 97편] YHWH malak,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왕 야훼
- 시 98편] 새 노래로 야훼께 찬양하라!
- 모든 피조 세계 위의 하나님의 통치
- 시 99편] YHWH malak,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 => 시 100편 감사의 노래, 결론

이러한 구조는 시 93-100편의 시들이 계획적으로 의도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시 93편과 시 100편은 서론과 결론의 역할을 하며 서로 짝을 이루고, 시 97편과 시 99편은 시 93편과 마찬가지로 '야훼-말락'으로 시작하는 야훼-왕 시로 서로 대응된다. 또한 시 96편과 시 98편은 시 97편을 중심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요구로 하나님 통치의 범위를 모든 민족과 피조물의 세계로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시 95편과 시 99편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내용과 형

59) 이러한 구성 원칙은 아모스의 민족들에 대한 설교 모음(암 1: 13 - 2: 16)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 Zenger, *Psalmen Auslegung* 2, 76쪽; 베스터만과 스톨뮐러 또한 시 100편이 그 앞의 시편들을 종결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M. E. Tate, 「시편 51-100」, 872쪽에서 재인용.

식상 독립적으로 보이는 시 94편도 ‘의로운 왕 야훼’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시 93-100편 안에서의 위치가 어색하지 않게 보인다.

췌어는 시 93-100편의 단락 가운데 핵심 부분(시 93, 95, 96, 98, 100 편)이 포로 시대 직후 성전 예식을 위한 칸타타로서, 아마도 가을에 열렸던 야훼-왕 축제를 위해 생겨났으며, 전체적으로는 시 93편과 시 29편의 야훼-왕 신학의 변형으로 이해한다.<sup>60)</sup> 이 핵심 부분은 후에 다른 민족들에 대한 야훼의 법적 심판 행위를 보여주는 시들(시 94, 97, 99 편)에 의해 보충됨으로써 야훼의 왕권과 통치를 찬양하는 시 단락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하나의 그룹을 이룬 이 단락의 시들은 현재의 시편 안에서 다른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 90편으로 시작하는 제 4권은 제 3권의 마지막 시인 시 89편에서 야훼의 무력함과 신뢰할 수 없음에 대한 불평(특히 시 89: 46-51)<sup>61)</sup>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모세 계약에 대한 회상과 야훼의 우주적 왕권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절망으로부터 희망으로의 전환점이 되고 있는 ‘야훼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한다.<sup>62)</sup> 제 4권의 서론 부분인 시 90-92 편에서는 영원하신 야훼만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그 중심인 시 93-100편에서는 야훼-왕의 능력과 신실하심이 선포되며 찬양되고 있다. 그리고 제 4권의 마지막 부분(시 101-106편)에서는 야훼의 왕권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응답과 호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제왕 시로 분류되는 시 101편은 하나님의 ‘인자’(יְרֻחַ)에 대한 찬양(시 101: 1)에서 시 100편 5절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4권을 마감하는 시 106편 마지막 구절들에서 시 93-100편 단락의 시들과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으며(시 106: 44-46/시 99: 6-8 등) 다른 찬양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광 송(시 106: 47)으로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는 비록 야훼-왕 시의 초기 형태들이 고대 혹은

60) E. Zenger, "Theophanien des Königsgottes JHWH", 427쪽.

61) 그러나 김진규는 이 단락에서 시인이 역사적 현실 앞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김진규,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 89편", 구약논단 제 15권 2호(2009), 105쪽.

62) R. E. Wallace, *The Narrative Effect of Book IV of the Hebrew Psalter*, (New York, Peter Lang, 2007), 33-50쪽.

포로 이전의 축제 제의에서 생겨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sup>63)</sup> 포로 시대 혹은 포로 이후에 현재적인 단락 형태로 수정, 추가되고 현재의 위치에 자리잡게 되어, 약속된 땅과 성전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만 궁극적으로 온 땅의 왕이신 야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시온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을 확신하게 하는, 야훼의 정의의 실현을 기대하는 개인적인 경건을 위한 신학적 “낭독서”<sup>64)</sup>로서 기획된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5. 참고문헌

- 권 오현, 「시편 탐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김 진규,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편 89편”, 「구약논단」 제 15권 2호 (2009), 83-110쪽.  
 김 창대, “주위 문맥에서 본 시 46편의 시온 신학”, 「구약논단」 제 15권 2호 (2009), 63-82쪽.  
 문 희석, 「오늘의 시편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차 준희,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 시 47편의 신학적 읽기,” 김 영일들, 「시편-우리 영혼의 해부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6), 155-172쪽.  
 함 성국, 「시편 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Bellingier, W. H., *Psalms-Reading and Studying the Book of Praises*, (Peabody: Hendrikson Publishers, 1990).  
 Craigie, P. C., 「시편 1-50(WBC 19)」 (손 석태 옮김), (서울: 솔로몬, 2000).  
 Dahood, M., *Psalms II: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with an Appendix*, Anchor Bible 17,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0).  
 Gunkel, H., *Einleitung in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  
 Howard, D. M., *The Structure of Psalms 93-100*, (Winona Lake: Eisenbrauns, 1997).  
 Kraus, H.-J., *Theology of Psalms*, trans. K. Crim,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6).  
 Leuenberger, M., *Konzeptionen des Königtums Gottes im Psalter*, (Zürich: Theologiescher Verlag, 2004).  
 Tate, M. E., 「시편 51-100(WBC 20)」 (손 석태 옮김), (서울: 솔로몬, 2000).  
 Wallace, R. E., *The Narrative Effect of Book IV of the Hebrew Psalter*,

63) 하워드는 시 93-100편 단락 안의 시편들이 모두 포로 이전 혹은 기원전 8 세기 초의 작품들이라고 추정한다. D. M. Howard, *The Structure of Psalms 93-100*, 184-192쪽.

64) E. Zenger, “Theophanien des Königsgottes JHWH,” 438쪽.

- (New York: Peter Lang, 2007).
- Weiser, A., *The Psalms, Old Testament Library*, trans. H. Hartwel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2).
- Weiser, A., 「시편(II) (국제성서주석 16-2)」 (김 이곤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 Wilson, G.,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Chico: Scholars Press, 1985).
- Zenger, E., "Theophanien des Königsgottes JHWH: Transformation von Psalm 29 in den Teilkompositionen Ps 28-30 und Ps 93-100," P. W. Flint / P. D. Miller, Jr.(eds.), *The Book of Psalms*, vol.2, (Leiden: E.J. Brill, 2005), 407-442쪽.
- Zenger, E., *Psalmen Auslegungen 2: Ich will die Morgenröte wecken*, (Freiburg/Wien/Basel: Herder, 2006).

검색어

등극시

시 93-100편

야훼-말락

야훼-왕 시편

야훼의 왕권

투고일: 2009년 7월 1일

심사일: 2009년 8월 23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11일

---

## The Structure and the role of Yahwe-King Psalms(Pss 93-100)

---

**Eun-Ae Lee**, Dr. Theol.  
Lecturer at Ewha Womans University  
München University

This paper will show that the Yahweh-King Psalms (Pss 93-100) are a coherent collection which was intentionally composed to emphasize the eternal kingship of Yahweh. The structure of the Yahweh-King Psalms reveals how the faith of the Psalter changed from despair in the exile period to the hope for the Yahweh's reign over all. Psalms 93-100 are studied in the context of Book IV and with attention to their role in the Psalter.

The Psalms of Yahweh-King are contained in Book IV(Pss 90-106) of the Hebrew Psalter. Pss 93-100, placed in the center of Book IV(Pss 90-106) comprise a literary unit, because their topic is Yahweh as king of the universe, and the psalms are closely connected to each other in style and terminology.

The emphasis on the kingship of Yahweh starts in Ps 93 comes to a head in Ps 100, which is intended to be the climax according to form

7+1 in the very deliberate structure of Pss 93-100. Ps 93 and Ps 100 make a pair that in which each is a preface and a conclusion in this collection of hymns. Ps 97, a Yahweh-King Psalm beginning with 'Yahweh reigns'(JHWH malak), corresponds with Ps 99 and with Ps 93. Ps 96 and Ps 98, which precede and follow Ps 97 extended the sphere of God's reign to all peoples and all creation with the calling 'praise with a new song.' Ps 95 and Ps 99 are linked in praising God as the King who saved Israel. Ps 94, which is seen as a separated psalm in this hymns-collection, deals with 'Yahweh as a righteous king' and is well joined to them.

This structure shows that the Yahweh-King psalms in Pss 93-100 of the Book IV are intended as a read-book (Lesebuch) for the people who had been exiled far from the promised land and temple, but looked to Yahweh as a king over all lands and nations for saving Israel and for reigning over all nations and peoples in righteousness and love. This psalms-section is an important turning point for the reader overcoming despair over the failure of the Davidic dynasty to the hope for the direct reign of Yahweh-King over this world.

### **Keywords**

Enthronement psalm  
Pss 93-100  
Yahweh's Kingship  
Yahweh-King psalm  
Yahweh-malak